

# 광주·전남 새벽 폭설에 곳곳 교통 체증

### 무안 9.3cm·함평 8.7cm·광주 7cm ... 눈길 사고 잇따라 여수공항, 제주행 결항 등 하늘길 끊기기도 오늘 아침 영하 11~영하 4도... 빙판길 안전 운전을

새벽 사이 폭설이 내리면서 산간도로와 고개 길 이 많은 전남지역 곳곳에서 교통 혼잡과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광주지역은 제설작업이 비교적 양호하게 진행돼 출근길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으나 밤심 운전으로 인한 눈길 사고는 여전했다. 일부 도로와 하늘·바닷길 통행도 한동안 통제됐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 기준 적설량은 무안 해제 9.3cm, 함평·장성 8.7cm, 담양 8.1cm, 영광 7.5cm, 광주 7cm, 나주 5.1cm, 곡성 4.5cm, 화순 4.4cm, 순천 2.3cm, 해남 2.1cm 등을 기록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고흥 영하 6.2도, 보성 영하 5.5도, 장흥 영하 5.1도, 해남 영하 4.6도, 강진 영하 3.6도, 광양 영하 3.2도, 광주 영하 2.2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밑돌았다.

광주와 목포·나주·순천·무안·화순·영광·함평·영암·장성·구례·곡성·담양·신안(흑산면 제외) 등 전남 13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으나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광주시는 동문로·남문로·북문로·무진대로·빛고을로 등 도심 주요 간선 도로 200개 노선(496km)에서 제설 작업을 벌였다. 무등산 등지를 오가는 시내버스 8개 노선 45대가 우회 또는 단축 운행했다.

전남도도 주요 지방도·국도·고속도로 5250km 구간을 제설했다. 지방도 이하 2540km, 국도 1616km, 고속도로 1094km 등이다. 경사가 급한 고갯길인 구례 성삼재(16km), 진도 두목재(1.5km), 진도 대명리조트 진입로(1km) 등 3개 도로는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이들 주요 도로들은 제설을 마친 뒤에도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해 출근길 정체 현상을 빚었다.

눈길에 미끄러지는 크고작은 교통 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8시7분께 광주 광산구 월전동의 도로

에서는 차량 4대가 추돌, 탑승자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오전 7시께 함평군 함평을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33.2km 지점에서 25t 화물차가 미끄러져 전복됐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폭설에 새들도 잠시 멈춤 18일 오전 광주 남구 양림동 한 아파트 전선 위에서 눈을 맞으며 두 줄로 나란히 앉은 비둘기들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을 연 상케 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하늘길·바닷길도 끊겼다. 이날 오전 광주공항은 김포·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6편이 모두 지연 운항했다. 여수공항도 제주·김포발 여객기가 결항됐다.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달 말까지 편성된 국내·국제선이 없다.

전남 서·남해 곳곳에 강풍·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목포·여수·완도 여객선터미널을 오가는 55항로 85척 중 13개 항로 18척이 항구에 발이 묶였다.

무등산·지리산·내장산·월출산 등 지역 내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도 대부분 통제됐다.

눈이 그친 뒤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20일까지 강추위가 예상된다. 광주·전남지역의 19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산간 도로나 고개 길, 교량 구간에서는 일부 결빙으로 인한 빙판길에 안전 운전이 요망된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20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는 물론 교통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교육청 온라인 진학 상담 진학사이트 신청 후 25일부터

전남교육청이 지역 내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4곳에서 비대면 온라인 진학 상담을 진행한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목포·순천·여수·나주 등 4곳에 설치된 권역별 진학지원센터에서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전남진로진학지원사이트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진학지원센터로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 교육청은 본격적인 화상 상담 서비스에 앞서 권역별진학지원센터 상담교사단을 대상으로 화상 상담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효율적인 상담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취학예정자 2명 소재 파악 안돼” 경찰 수사 의뢰

### 광주·전남 2만7795명 예비 소집

광주·전남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들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교육청은 각각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1만 2839명과 1만 4956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은 7명(광주 5명, 전남 2명)에 대해 확인절차를 진행했다. 주민센터 직원이 아동들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아동들과 부모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아동들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다행히 5명 모두 부모와 함께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범칙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교육청도 소재 확인이 안된 목포와 진도의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진도에서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1명은 해외 체류 중일 가능성이 있지만 목포에서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은 아동에 대해 학교 측이 관찰 복지센터에 소재 파악을 의뢰한 뒤 가정방문을 했으나 아동의 소재가 확인 안 됐고, 부모나 아동을 만나지 못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는 광주의 경우 전년도 1만 3619명보다 780명이나 감소했으며, 전남은 전년도 1만 5070명보다 114명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도 매년 줄고 있다.

교육 당국은 실종 등 아동학대 현상을 파악하고자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들에 대해 예비소집을 하고 있다.

전에는 예비 학부모와 아동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신원을 확인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일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재원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취학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가정 보호 아동의 경우 예비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영상통화로 아동과 학교 관계자를 연결하는 방식을 취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서구, 참여 동아리 모집

광주 서구가 19일부터 지역 주민 독서생활의 기반이 되는 '2021년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독서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독서문화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월 1회 이상 정기적 모임이 가능한 5인 이상의 독서동아리며, 선정된 독서동아리에는 토론회서 지원과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워크숍(문학 기행 등) 개최 지원과 작가 초청 북 콘서트 초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은 독서토론, 창작(글 쓰기), 독서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계획을 수립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상록도서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kjih32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상록도서관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독서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해 도서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다문화·조손가정 학습지원 광주 동구 맞춤형 프로그램

광주 동구가 올해 다문화 및 조손가정의 어휘력이 부족한 아동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휘력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동구는 4개 방문학습지와 협약을 맺고 드림스타트 아동 110여 명을 대상으로 학습지 방문선생님이 주1회 가정방문 또는 온라인 1:1 개별학습지도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학습지 업체와의 연계로 통해 학습을 희망하는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다양한 분야별 맞춤형 학습기회를 제공해 아동의 어휘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드림가정의 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학 동구정장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습지 교육을 망설였던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습능력향상은 물론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